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가급적 교회 마당에는 주차를 삼가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옷장과 살림을 정리해 보시고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최경미 배삼순 강금연 이윤주 박윤숙 이기분 김성은
 4/22식 당 봉 사 : 최현옥 이은주 박미란 이수정 박시내 이소순 김종술
 오늘설거지봉사 : 최은미 이성범 이국노 김민화
 다음 주 설거지 : 김기성 최경미 최양순 콧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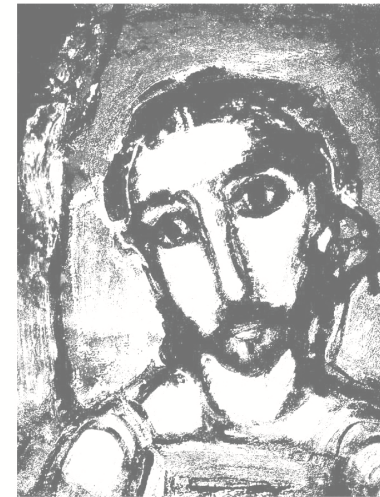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꽃이 피어남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 꽃 한 송이 안에 담긴 시련과 고통, 믿음과 용기를 보아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마음 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큰 선거를 치르고 어수선한 가운데 미사일의 위협으로 더욱 어수선해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전쟁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질없는 갈등을 버리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권 순 김명순 이보영 김문주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종철 고영애 문복순 김최현선 박권동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배근수 김금순 백성래 서정순 손성현 안경아
 윤수진 이인웅 오송경 이종현 이주영 오재영 이지훈 이창석 박수경
 전영자 정재윤 정미경 정현선 조병무 송양진 조병조 조정연 조병주
 차혜심 노미향 하정석 이명희 한기택 홍선희

감사헌금:

김영순 백묘현 송동준 김진경 이범석 류정욱 조항범 오현정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재광

녹색꿈헌금:

장원호 박성희

장혜숙	백혜숙	송임회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김미순
최희영	최경미	정복순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곽혜자
정경례	진정숙	박옥순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교회	박홍재
박효선	허정윤	배삼순	김현주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임영선
정영선	서정순	교회	송양진
박혜경	조항미	최숙화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꽃은 미쳐야 핀다

(열정)

이근대

흙에
 꽃씨가 미쳤고
 햇볕에 꽃씨가 발악했다
 바람에
 꽃잎이 미쳤고
 빗방울에 꽃향기가 폭발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새도
 나무에 미치고
 푸른 구름에 미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별빛에
 꽃씨가 미쳤고
 달빛에 꽃그림자가 미쳤다
 밤이슬에
 꽃잎이 미쳤고
 빗방울에 꽃씨가 미쳤다
 세상에는
 미치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 낡아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의 시련과 슬픔을 구원의 날에 임할 기쁨과 영광을 꿈꾸며 이겨내십시오.

아멘.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잊고, 작은 일에도 자주 낙심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주전 8세기 예언자들 / 김재흥 목사 기도 : 박영신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종 권사	주혜연 선생 권미숙 권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이성범 안정숙 정경례 박경원
	헌금위원	조병무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빈무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28:16-20)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무덤은 공허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직접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뿐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선포한 나라의 도래를 믿고 기다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죽음에 의해 빈껍데기처럼 허망하고 절망스러워진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날,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스러운 나라, 풀씨가 첫째 될 수 있는 나라, 사랑과 소망으로 평등한 나라, 이진 꿈처럼 비현실적인 나라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그 힘 있는 분이 권력의 횡포에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다니... 절망한 사람들은 그만 살맛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루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 있지 않은 쓸쓸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런 메울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고 육신이나 육신에 관한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상상

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 백 년 후에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만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를 나눠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런 성인 유해 숭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의 작은 부분이라도 모시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아름답긴 하지만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 게 서운한 나머지 그 흔적이라도 땅에서 찾고자 하는 일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진정 생명 있는 열매였다면 스스로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변신하길 바랄 테니까요.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 계시기 위해, 시간을 초월해 세상 종말까지 계시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건 우리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는 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무의미성과 사람이 버려지처럼 비천해지는 데 그만 소스라치고 맙니다. 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조차 예수님의 현존을 증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